오늘 도내 교육기관 재난대응훈련

도교육청, 18일까지 5일간 교육지원청 · 학교 등서
안전문화행사 · 재난 상황 대비 상황보고 체계 훈련
식중독 · 특수학교 화재 대비 · 응급처치 교육 등 실시

전북도교육청은 재난 대응능력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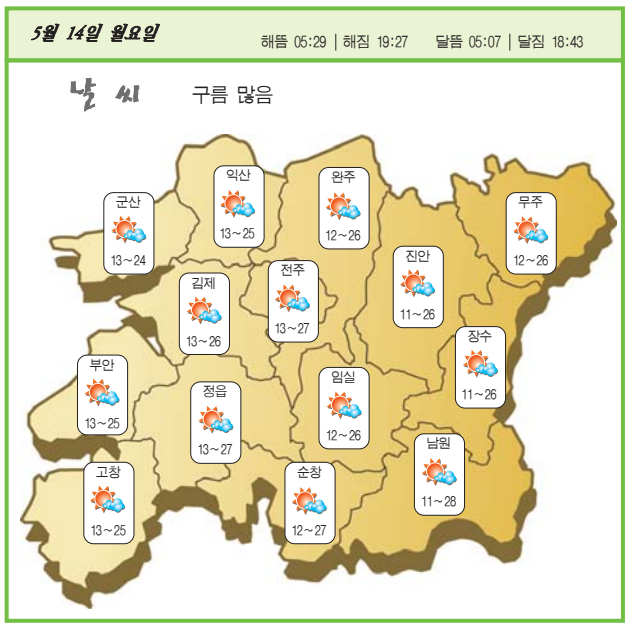
이번 훈련은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이루어지며 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등 도내 전 교육기관(1,339개 기관)과 학생, 교직원이 참여한다.

각급 학교에서는 안전 관련 표어 만들기, 포스터 그리기, 동영상 시청 등 학생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문화행사와 자체 취약분야를 선정하여 이에 대비하는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실제 재난훈련으로는 1일차 과학실 안전사고 수습훈련, 2일차 기관별 취약분야 선정 현장훈련(모든 기관), 3일차 전국 지진 대피훈련(모든 기관), 4일차 진로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 수습훈련, 5일차 미세먼지 경보 발령에 따른 안전 확보방안 토론을 실시하며 재난상황 대비 상황보고 체계 훈련도 이루어진다.

또한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 수습 훈련, 특수학교 화재 발생사고 수습훈련(전주선화학교), 전 직원 소화기 사용훈련, 불시기능점검 훈련 등이 도교육청 각 담당부서 및 해당 학교에서 진행 될 예정이며, 훈련 2일차인 15일 오후 1시 30분부터는 도교육청 직원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이번 훈련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재난환경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토론기반 훈련과 취약분야에 대한 실제훈련 강화로 재난대응 능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말했다. /기동취재반



'청소년의 인권! 지금부터 대화하자'

전주시청소년시설연합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성료
비즈팔찌 · 근로인권 바로알기 게임 등 프로그램 다채

전주시는 12일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주중앙살림광장에서 청소년과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전주시청소년시설연합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를 가졌다.

'청 · 정 · 지 · 대(청소년 정당한 인권! 지금부터 대화하자)'를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솔내청소년수련관 등 전주시 10여개 청소년시설이 연합해 청소년 인권을 주제로 청소년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청소년시설과 청소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 공동체의식을 회복하고, 청소년들이 에너지를 유감없이 발휘하면서도 재미있게 어울릴 수 있는 축제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도 담겨 있다.

청소년 헌장낭독과 청소년 참여기구 소개, 우수 청소년 및 지도자에 대한 시상 등 식전행사로 문을 연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식빵아트 및 매실차 △비즈팔찌 만들기 △근로인권 바로알기게임 △인권 의식 격파게임 △인권인식 개선 현판 스티커 △행운권 추첨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가 펼쳐졌다.

전주시는 12일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주중앙살림광장에서 전주시청소년시설연합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를 가졌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또한, 난타와 댄스, 수화, 플루트 등 다양한 체험과 공연을 통해 청소년들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을 연출했다.

행사를 주관한 김관우 솔내청소년수련관 관장은 "이번 행사는 청소년의 달 5월을 기념해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 전주시가 추구하는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행사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학교, 청소년시설 등 모든 청소년 관련자들이 함께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 접근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동취재반

취약계층 희망일자리 제공

전주시, 올해 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DB 구축 · 서비스지원 · 환경정화 등 4개 분야

전주시가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희망의 일자리를 제공키로 했다.

시는 14일부터 오는 18일까지 5일간 '2018년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의 참여 희망자를 각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이번 3단계 공공근로사업의 참여인원은 총 120명으로, 일반노무와 행정업무로 나누어 모집한다. 사업 참여기간은 오는 7월 2일부터 9월 16일까지 3개월 여 동안이다.

주요사업 내용은 △DB구축지원 △서비스지원 △환경정화 △기타사업 등 4개 분야로, 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자로 실업상태이거나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마쳐야 한다. 또 행정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단, △실업급여 수급권자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재학생(야간대, 방통대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 △정기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 공무원 가족(배우자 및 자녀) △전업농민이나 그 배우자 등은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임 단가는 보통 65세 미만 단순노무의 경우 간식비 등 부대비용 포함해 1일 3만5,120원, 근로시간은 주5일 근무, 1일 4시간이다.

공공근로사업의 최종 선발 여부는 오는 6월 28일과 29일 이틀간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281-2555)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기동취재반

삼천도서관 독서활동 프로그램

전주시립도서관이 전주지역 초등학생들의 독서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전주시립 삼천도서관은 지난달 3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삼천남초등학교 전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교육 및 독서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프로그램은 △삼천도서관 자료실 견학 △도서관 이용방법 설명 △독서활동 △자율독서 등이다.

삼천도서관은 오는 15일에는 이 학교 1학년과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교육을 실시한 후, 학년별 활동을 통해 독서에 대한 흥미를 느끼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기동취재반

전주시 청소년 영어 페스티벌 참가자 모집… 내달 8일까지

전주시가 지역 청소년을 외국어 실력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로 키우기로 했다.

시는 14일부터 오는 6월 8일까지 4주간 '제4회 2018 전주시 청소년 영어 페스티벌'에 참가할 청소년들을 모집한다.

오는 9월 1일 오후 2시 전주 전통문화관 한벽극장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이 영어를 활용한 다양한 공연과 경합을 통해 재능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날리고, 영어 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자리다.

이번 페스티벌은 전주시 관내 중·고등학생 및 전주시에 주소를 둔 동연령대 재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평소 영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부담 없이 신청하여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스피치, 연극·뮤지컬, 팝송 부르기 등 개인전과 단체전을 혼합하여 다양한 참가 부문을 마련했다.

부문별 수상자 및 팀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주어지며,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iice1365@naver.com) 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 행사는 전주시에서 주최하고 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서 주관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국제문화교류진흥원(063-214-1365~6) 또는 전주시 교육청소년과(063-281-5314)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기동취재반

도교육청, 초등학교 입학초기 적응 지원 자료 개발

전북도교육청은 2018학년도 상반기부터 초등학교 입학초기 적응활동 지원 자료 개발을 시작해 하반기 중에 마무리하고 2019학년도부터 도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자료 개발에는 현재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를 비롯하여 다년간의 1학년 담임 경력교사, 다양한 교육과정 지원 자료개발 경험이 있는 교사들이 참여하고 있어 학교 현장에 보다 실효성 있는 자료로 개발, 보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초등학교 입학초기 적응활동 지원 자료의 개발 및 보급을 통해 입학초기 초등학생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 즐겁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동취재반